

教養英語 講讀 教材 : 문제와 제안

金 忠 培
(高麗大 英語教育科)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성패는 교수, 교수법, 교재 및 영어교육의 전문적 관리 체제의 성격에 달려 있다. 현행 강독 교과서는 교양영어 강독 과목의 목적과 학습 목표 실현에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교양영어 강독의 현실, 강독 교과서의 실태와 교과서의 조건, 교재 편찬의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본다.

1. 교양영어 강독의 현실

우리나라 대학 교양영어 교육이 소수의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어제 오늘에 나온 말이 아닌데, 교양영어 과목의 중심이 되는—조사된¹⁾ 전국 109개 4년제 대학 중 105개 대학이 평균 6시간의 강독을 실시하고 있음—강독교육의 현실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담박에 수긍이 간다.

각 대학의 교양영어 주관 부서나 책임자는 해당 대학 출판사나 시중 출판사가 발간한 교육 목표와 편집 원칙이 뚜렷하지 않은 강독 교과서를 가지고 난이도, 학습 부담(learning load), 유기적 기능 등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이 진도표 중심의 교수(강의)계획서를 작성한다. 가장 더딘 학습의 진도까지를 범위로 하여 의뢰받은 한두

교수가 출제한 중간 및 기말 시험을 치른다. 담당 교수별로 채점, 성적이 제출되거나 성적 분포를 상향 조정하여 성적을 낸다.

평균 70명 규모의 교실 수업 활동은 교수와 강사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독해(comprehension)가 아닌 해독(decipher)을 하는데 필요한 문법과 구문적인 요점을 설명하면서 여유 만만한 진도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을 해나가거나 학생들이 차례로 한 패러그래프씩 읽고 번역을 해보며 틀린 곳을 교정받아 나간다. 한 마디로 문법 역독식 수업이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가 연습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밖의 다른 활동은 처음부터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체로 예습 없이 교실에 들어와 해석을 비롯해 주목된 사항을 열심히 받아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1986년도 대학 교양영어 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했던 것을 가리키며, 이 글에 나오는 몇 가지 통계 수치도 필자가 참여한 이 평가 자료에 바탕을 둔 것임을 밝힌다.

적어두든지, 근래 대학가의 베스트 셀러인 오역투성이 번역집에 매달려 시험을 위한 비자력적이고 비효율적인 영어 공부를 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어진 시험 범위의 과의 영문을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말로 번역해 보는 것이 교양영어 강독의 알파오메가로 착각한다.

이상에서 간추려 본 영어 강독 과목의 현실은 이 과목의 보편타당한 목표에—영어로 쓰인 일반 교양 및 전공 분야의 글을 때로 사전을 사용하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훈련받은 사람보다는 더디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에 도달되도록 훈련시킴²⁾—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교양영어 과목을 이수하고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느끼는 학생을 드물게 한다. 심지어는 암기와 주입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고3 때보다 영어 실력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학생도 있고, 대학의 교양영어는 easy-going 과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실의 원인을 따지려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실로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들추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 나름으로 교양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요소를 간결히 대별해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 및 외래 강사와 가르치는 방법, 즉 영어 교수법, 가르쳐질 내용, 즉 교과서 그리고 영어교육의 전문적 관리 체제가 아닌가 싶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4요소가 모두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성과 있는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있어 여타 문제의 거론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으나 교재만 부각시켜, 교양영어 강독 교과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강독 교과서의 조건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2. 교재의 중요성

어떠한 외국어 교수 방법도 가르칠 언어 자료를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지는가도 언어 자료의 선택과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거두는데 교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Rivers(1981 : 475)도 교실 수업과 교실 밖에서의 학습의 대부분을 교과서가 결정지으며,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또 어떻게 배울 것인가와 어느 부분이 강조될 것인가가 교재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Finocchiaro와 Bonomo(1973 : 160)가 지적하듯이 어떤 목적, 어떤 상황에도 이상적인 교재란 불가능하고, 교사가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보태고 빼고 수정하고 강조점을 달리하는 응용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미흡해도 교사가 응용하고 보충할 수 있어 교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 교양영어의 경우 한 학년 또는 두 학년 전체 학생이 수강 대상이 되고 여러 교·강사가 참여하며 비교적 대단위 수업이고 공동 관리 실타버스인 데다가 노련한 영어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형편에서³⁾ 교양영어 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교과서의 구성과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교수나 외래 강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잘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이자 최대의 구속력을 주는 것은 교과서에 실린 글의 진도표가 아닌가 싶다.

3. 교재의 실태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교육 목표가 뚜렷하고 그

2) 이 기준을 미국의 '집중 영어 프로그램 위원회'가 외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해 작성한 수준 1에서 수준 6까지의 6등급으로 구분되는 '영어 능력 도표'에 비추어 보면 수준 4~5에 해당되며, 이를 다시 친숙한 TOEFL의 독해 분야로 기준하면 55점 안팎 이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참고로 '86학년도 1학기 기준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전임 교수 대 외래 강사의 인원수 비율은 전국 대학 평균이 48% 대 52%이며, 시간수 비율은 46% 대 54%이다. 또 전임 교수라도 전공 과목에 비해 교양영어 교육에 관심과 연의를 가진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실천되는 대학(예를 들면 西江大)을 제외하고는 현행 대부분의 교양영어 교과서는 필자가 앞서 제시한 교육 목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1986년도 대학 교양영어 평가 보고서」('76~'83)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교재를 자체 편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천편일률적이며, 각 대학의 교재들은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편찬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편집 과정에 영어교육 목표가 처음부터 유명무실하여 이렇다 할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 읽었거나 가르쳐 본 경험에서, 흥미나 교양 위주로, 자기 전공 영역과 관계된 글이기에 등 편집위원 취향에 따라 비교적 단시간에 인상적으로 골라진 글들로 묶어진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교육 목표의 일관성과 수직적 연계성 등 꼼꼼하게 따져져야 할 사항이 무시된 채 편집된 교과서는 이 교재를 통해 습득이 기대되는 어학 기술(어휘, 구문, 독해 등)과 문체 및 학습 대상 언어(target language)권의 문화와 심지어 글의 장르별 안배에 있어 안목과 균형을 잃기 마련이다.

읽기 기능 지도의 영어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면 더욱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학 교양영어 독본들이 연습 문제를 갖추지 않았거나 꾸며져 있다 해도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진정한 의미의 독해력 신장과 테스트에 도움이 못 되는 유형이 아닌가 싶다. 이런 연습 문제가 없는, 또 각주가 자세하지 않은, 더러는 뽀얀 글이 쉽게 읽기 어려운 수준의 교과서는 독해가 아닌 해독과 번역 작업을 낳게 하고, 이 해독은 역독식 수업은 연습 문제가 없는 교과서를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앞서 영어 강독 교재가 동일한 방식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편찬된다고 했는데, 따라서 몇 대학의 경우를 빼고는 대학별 영어교육의 특성이 교과서에 엿보이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십 년, 이십 년 아니 그 이상 동안 똑같은 글이 단골 메뉴로 여러 대학의 각기 다른 유형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해마다 또는 일정

기간마다 몇 개의 과만이 교체되어 새 책으로 나올 뿐이라는 점이다.

'86년도 대학 교양영어 평가를 위한 자르로 제출된 54개 대학의 '86학년도 1학기 교수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다수의 대학에서 공통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글의 제목이 금방 눈에 띈다. 편의상 필자 나름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빈도가 더 많은 순서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대학 1. *What Every Freshman Should Know*
- 2. *On Attending College*
- 3. *I Never Went to College*
- 4. *What Are We at College for?*
- 독서 1. *On Reading*
- 2. *How to Read Better and Faster*
- 3. *Why a Classic Is a Classic*
- 단편 1. *The Luncheon*
- 2. *Mr. Know-All*
- 3. *Appointment with Love*
- 4. *The Strawberry Season*
- 5. *After Twenty Years*
- 6. *A Day's Wait*
- 7. *Shooting an Elephant*
- 8. *The Open Window*
- 9. *The Lady or the Tiger?*
- 자전 1. *University Days*
- 2. *Three Days to See*
- 3. *The Making of a Man*
- 4. *The Gift of Understanding*
- 충고 1. *Advice to a Young Man*
- 2. *The Best Advice I Ever Had*
- 3. *What Is Leadership?*
- 4. *Letter to a Young Scientist*
- 기타 1. *The Road to Happiness*
- 2. *I Have a Dream*
- 3. *The Wisdom of Tears*
- 4.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필자가 사반 세기 전 교양영어 시간에 배운 글도 몇 과 섞여 있는 이런 글들이 교양영어 독본에 실릴 이상적인 글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작업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따져볼 저면의

여유도 없다. 다만 꽤 오래 전에 쓰여진 글들이 꽤 오랫동안 꽤 많은 대학의 교양영어 독본에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다른 학생이 한번만 배우는 것이니까 문제삼을 일이 못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대학의 영어 담당 교수의 영어교육과 교재 편찬에 대한 개선 의지의 부재와 새로운 학습 자료 발굴에 등한함이 엿보인다.

앞서 교양영어가 easy-going 과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교양영어 강독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학습과 교수 부담(learning and teaching load)이 적다는 점이다. 시험 문제의 성격말고도 우선 다루는 분량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어느 학기 주당 3시간 강독을 하는 K대학의 경우 실라버스에 주어진 진도 계획은 12과에 48페이지(4·6 배판)였고 실제로 교과서 지문만으로 출제된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4과에 14페이지, 기말고사 5과에 22페이지에 불과했다. 담당 교수에 따라 별도의 자료가 숙제로 부과된 반이 있었을지 모르나, 의무적으로는 이 분량의 글만 다루면 되었다. 이 교수·학습 부담감의 문제는 교재를 다루는 분량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또 학생의 읽기 기능의 수준과 버릇, 지나친 해독 위주의 수업, 교과서의 성격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필자 기준으로 보면 교양영어 강독에서 다루는 영문의 절대 분량이 적다고 느껴진다.

이 영문을 읽는 절대 분량과 경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제한된 시간에 비교적 어려운 글의 정독 훈련 이외 자력적인 다독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목적의 실현은 다름 아닌 부교재나 workbook을 통한 숙제 활동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부교재나 work-book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교재의 실태와 관련하여 끝으로 지적해야 할 사실은 편집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연습 문제가 없고 각주도 자세하지 않은—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각주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있기도 한데—교과서만 있지 교사 지침서가 없다는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영어교육을 잘하고 있다

는 西江大의 경우 영어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담 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서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교사 지침서의 개발이라고 한다. 진도표와 시험과 성적 관리 일에 머무는 대부분 대학의 교양영어 주관 부서나 책임자가 바람직한 영어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분명해진다.

4. 교재의 조건

일반적이며 추상적으로 말해서 훌륭한 교재란 학습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 반영된 교재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교재의 경우 Rivers(1981 : 476~82)의 45개 항목, Finocchiaro와 Bonomo(1973 : 256~59)의 58개 항목의 checklist 같은 평가 기준이 제시될 수 있겠다. 이 두 checklist는 영어 4기능과 기본 교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기 기능 중심의 우리 대학 교양영어 독본에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좋은 영어 교재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가를 알 수 있으며, 교과서 편찬 시 한번쯤 새겨볼 자료가 아닌가 한다.

아름든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은 앞서 언급한 그런 평가 checklist로 돌리기로 하고, 필자는 교양영어 강독 교과서 편찬 때 선택될 글과 편집에 대한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는 흔히 하는 말이지만 선정될 글의 내용이 대학 수준의 지적 만족을 주어야 할 것이다. 흥미 있되 교양을 주며 인상에 남을 만하고 생각하게 하는 글인가를 고려해야 하겠다. 이 글의 내용 문제는 다음의 두 조건, 즉 어학적인 면과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아울러 생각되어야 함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The Lady or the Tiger?* 같은 글은 대학 수준의 지적 만족을 주지 못하는 쉽게 판단되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글이 어학적으로 배울 거리를 제공해 주는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난이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인데 어휘, 속어, 구문, 독해 등의 훈련에 바탕이 되는 언어 자료의 구실이 될 만한 글이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재미

있거나 좋더라도 읽기 기능과 독해 신장에 그다지 이바지되지 않는 글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와 의견을 달리할 분이 많을 지 모르겠으나 어학적 배울 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Hemingway의 *A Day's Wait*가 영어 강독 독본에 들어갈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꽤 뒤로 쳐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째로 난이도가 적절히 조정되고 안배된 글들이 실려야겠다. 모든 글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는 난이도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상대적으로 쉬운 글과 어려운 글이 적절한 비율과 순서로 모아지고 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조건은 외국어의 습득 훈련은 체계적 발전 단계를 밟아 누적적으로 진척되어져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서도 비롯된다.

학생의 수준도 반영되어야 하는 이 난이도를 판단하는 기준의 설정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피상적인 말이 되겠으나 아무리 쉬워도 학생들에게 다소간 학습 부담감을 주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나친 교수 부담감을 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⁴⁾ 글의 어렵고 쉬움은 실제로는 영어 구문의 난이보다는 글의 내용이 교양영어 수준에선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내용의 이해에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글은 교양영어 독본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로 글의 장르와 문체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종래의 문학 작품 편중은 계속 더 지양되어야 하며, 전공 준비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을 위해서도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의 글이 고르게 선택되는 게 바람직하다. 교과서가 단일 종류일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의 영어 독본이 단일권임—각기 다른 계열의 학생들에게 전공적 교양에 흥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체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단순한 구조의 글과 복잡한 구조의 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고 자전적인 글, 해설적인 글, 논란을 벌이는 글,

기타의 글(연설문, 서한문, 일기문 등)의 구성과 균형이 잡혀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도 수필과 단편의 안배를 생각해야 하며, 회목 한 편과 시 몇 편도 교양영어 독본에 실어봄 직하다. 그리고 글 선정시 영어권 사람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과 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 대한 고려가 주어진다던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는 앞서의 4가지 조건이 반영된 글들이 선정된 후의 편집상의 문제인데,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한 주석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주어진 글에 대한 읽기 기능을 위한 분석과 독해 활동을 요구하는 연습 문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문과 간단한 주석만 주어진 영어 교과서는 학습 목표와 그 실현의 방향이 처음부터 없는 죽은 교과서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건에 딱맞는 강독 교재는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완벽하다기보다는 보다 만족한 교과서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함과 교과서 편찬에 좀더 신중하고 시간과 정열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필자의 소견으로는 판권, 인쇄, 자존심 같은 교육 외적 문제가 도외시 될 수 있다면 국내에서 또는 해당 대학에서 서툴게 편집되는 교재보다는 전문가가 심혈을 쏟아 만든 짜임새 있고 주석이 자세하고 폭 넓은 연습 문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틀린 영어나 주석과 인쇄가 거의 없는 영·미국에서 나온 교재를 과감히 채택했으면 싶다.

5. 개선 방향

대학 교양영어 강독 교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언급된 교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재의 이상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1차적인 개선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 하나 하나에 대한 개선책은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까지 언급이 안된 강독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선행 고려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4) 여러 조건을 무시하고 대충 말해서 교양영어 강독의 글의 평균 난이도 수준은 널리 성령하고 있는 TOEFL의 Reading Passage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하고 싶다.

먼저 어떤 방식의 수업 활동을 할 것인가가 교재 개발의 전제가 된다. 번역을 주로 하는 활동이나 묻고 대답하고 연습 문제를 충실히 푸는 활동이나에 따라, 또 종래의 역독식 수업이나 속독을 비롯한 요지 파악 중심의 읽기 능력 향상 훈련이나에 따라 강독 교과서의 성격은 달라져야 하고 다르게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영어 구사력과 영어교육에 대한 훈련, 경험,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영어 강독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강독 과목을 대부분 대학(85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습 과목과 연계를 맺을 것인가 독립시킬 것인가가 강독 교재의 성격을 내용, 난이도, 연습 문제에 이르기까지 달리 하게 마련일 것이다. 이 통합 운영을 실제로 시행하는 대학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점이 많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세는 종합대학 또는 입학생이 많은 대학의 경우 단일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가 다종의 교과서를 만들어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고 교과서 부피와 값을 줄여 줄 것인가도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또한 이 일종·다종 교과서 개발 문제는 전공 영역별 특성화 말고도 입학시 영어 능력 차에 대한 대처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네세는 교실에서의 정독 이외 교실 밖에서의 다독에 대한 자료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workbook 성격이든 좀 쉬운 글로 된 부교재이든 학생들의 자력적인 영어 학습 훈련과 다루어 본 영문의 절대 분량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이런 보충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며, 필자 경험에 비

추어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밖에 교사 지침서와 평가 자료의 개발 등 주교재 이외의 보조 자료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양영어 강독 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없어야 할 자료가 있는데, 다름 아닌 오역 투성이 번역집이다. 각 대학의 영어 강독 교과서를 첫 과부터 끝 과까지 우리 말로 번역해 놓은 이들 대학가의 베스트 셀러는 학생들의 자력적이고 생산적인 영어 학습을 저해하며 곳곳의 오역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유발시킨다.

이런 자습서가 성행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약삭빠른 상흔이 돈을 벌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주석이 자세하지 않은 교과서, 번역이 주가 되는 수업 활동과 시험 문제, 학생들의 영어 강독 과목의 목적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수동적이며 나태한 학습 태도에도 돌려진다.

이런 해가 많은 불법 출판물을 금지시킬 방도가 정말 없다면 차라리 교양영어실에서 양질의 번역을 제공하고, 교실과 시험에서 번역을 최소화하고 다른 활동과 유형을 강화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차선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년도 대학 교양영어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 제 86-3-48호.

Finocchiaro, Mary and Bonomo, Michael, 1973,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s*, New York: Regents Publishing Co.

Rivers, Wilga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